

갤럭시노트7, Power Off

삼성전자 “판매·교환·생산까지 중단” 공식 발표

내일부터 다른 기종 교환·환불
외신들 “기술력 명성에 큰 타격”

또 다시 발화 사태를 겪은 ‘갤럭시노트7’의 생산과 판매가 중단됐다. 구매자들은 삼성전자의 다른 기종으로 교환을 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품 판매와 교환, 생산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식 발표했다. 사실상 단종을 선언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한국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 당국과 삼성전자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국가기술표준원도 같은 날 갤럭시노트7의 사용·교환·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최근 보도된 교환품 소손 사건들에 대해 아직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기종으로 교환이나 환불은 이달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 최초 구매처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번 교환품 발화 논란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에 먹구름이 끼었다. 최대 경쟁사인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7’의 판매가 본격화된 시점이어서 우려가 더 크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애플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는 시점에 갤럭시노트 신제품을 내놓으며 맞불 작전을 펴왔다. 특히 올해는 제품 출시시기를 앞당겼고, 출시 초 반응도 좋아 애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

기도 했다. 하지만 두 번의 발화 사태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다. 여기에 안드루 로이드 진영에 큰 파장을 불러온 구글의 ‘픽셀’이라는 복병도 등장했다.

외신들은 이번 발화 논란과 관련해 일제히 삼성전자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조원에 달하는 당장의 손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일로 브랜드 가치를 비롯해 기술력 등의 명성에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으며, AP통신은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회사의 명성에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와 관련해 “이미지 훼손은 불가피하다. 중장기적으로 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민족지도자 인촌 선생의 유지 기리며…



민족지도자 인촌 김성수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30회 인촌상 시상식이 1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준식 사회부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교육부문 수상자), 김병익 문학과지성사 고문(언론·문화부문), 백완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문사회부문), 염한웅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과학기술부문), 이명박 전 대통령, 이용훈 인촌기념회 이사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변영욱 동아일보 기자 cut@donga.com

제30회 인촌상에 홍성대·김병익·백완기·염한웅 씨

〈상산학원 이사장〉 〈문학과지성사 고문〉 〈고려대 명예교수〉 〈포항공대 교수〉

고려대선 인촌선생 유품 전시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30회 인촌상 시상식이 11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 2층 크리스털 볼룸에서 열렸다.

이 상은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에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경성방직과 고려대를 설립한 민족 지도자 인촌 선생의 뜻을 잇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인촌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 경성방직,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이바지

했으며 2대 부통령을 지냈다. 인촌상은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이사장 이용훈)와 동아일보사가 제정해 운영하고, 해마다 인촌 선생의 탄생일(10월 11일)에 맞춰 시상식을 열고 있다.

이 이사장은 시상식에서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교육 부문) ▲김병익 문학과지성사 고문(언론·문화 부문) ▲백완기 고려대 명예교수(인문·사회 부문) ▲염한웅 포항공대 교수(과학·기술 부문) 등 부문별 수상자에게 상패와 기념메달, 상금 1억원을 각각 수여했다.

앞서 인촌상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승주)는 올해 교육, 언론·문화, 인문·사

회, 과학·기술 등 4개 부문에 대해 4월 중순부터 후보자를 접수해 9월 초까지 권위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엄격한 심사를 벌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편 고려대는 11일 인촌 김성수 선생의 탄신 125주년을 맞아 교내 박물관에 인촌기념전시실을 개관했다. ‘인촌 선생과 고려대, 교육자로서의 삶’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공간엔 인촌 선생의 유품과 사진, 고려대 교사자료 등을 전시한다. 평소 검소한 생활을 했던 인촌 선생의 뜻을 받들어 유품은 5점 가량만 전시할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경륜·경정·생활체육

4년만에 랭킹 8위…‘온라인스타트’ 새 강자 예감

경정 차세대 유망주

12기 김인혜

축구선수 활동하다 2013년 새 도전
체중 가벼워 직선 활주 스피드 유리
전문가들 “온라인스타트 강할 것”

올해 미사리 경정장의 최대 화두는 여자 경정선수들의 대약진이다.

현재 등록된 여자선수는 총 17명. 대표적인 여전사로 슈퍼우먼 토너먼트 초대 우승자 문안나를 비롯해 안지민 등을 꼽을 수 있다. 올 시즌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12기 김인혜(26·사진)도 빼놓을 수 없다.

경정선수로 데뷔하기 전에 축구선수로 활약하던 김인혜는 새로운 꿈을 찾아 경정에 도전했다.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체중 50kg의 장점을 앞세워 직선 활주 때 다른 선수들보다 스피드에서 유리했지만 찌르기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스타트 또한 들쭉날쭉해 기쁨에 콩나듯 입상을 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며 팬들이 주목하는 선수로



거듭나고 있다. 경정에 데뷔한 2013년 3착만 2번 했지만 2014년 우승 4회, 준우승 9회, 3착 9회로 팔복상대했고 2015년에는 우승 6회, 준우승 8회, 3착 15회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올시즌에는 우승 8회, 준우승 13회, 3착 9회로 후반기 평균 착순점 7.09와 평균득점 6.84로 전체랭킹 8위에 올라섰다.

김인혜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피나는 노력이 숨어있다. 시간이 날 때 마다 영종도 훈련원을 찾아 부족하다고 생각했

던 부분을 반복훈련하며 단점을 보완해 나갔다. 경주 동영상과 이미지 트레이닝도 함께 했다. 날뛰던 스타트도 안정됐다. 이제는 코스별로 자신만의 테이터를 확립해 큰 기복 없이 경쟁에 나선다. 덕분에 아웃코스에서도 입상이 늘고 있다.

2014년 9회차 2경주 때는 5코스에서 2착, 21회차 2경주 때는 찌르기로 6코스에서 선두를 장악해 32.9배의 고배당을 안겼다. 26회차 9경주, 5코스에서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며 우승해 55.3배의 대박을 선물했다. 올해도 바깥쪽 코스에서 이번의 주인공으로 자주 활약하고 있다. 6회차 3월10일 13경주, 5코스에서 2착에 성공해 84.2배를 기록했고 13회차 4월28일경주에서도 5코스에서 입상해 13.9배의 배당을 기록했다.

경정 전문가들은 “축구선수 출신인 만큼 기본적으로 운동신경을 갖추고 있는데다 후보생 시절부터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과정을 거쳐 데뷔했기에 기본기가 탄탄하다. 가벼운 체중 덕에 10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스타트에서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요주의 선수로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고 앞으로의 행보를 예상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앱을 이용해 경주권을 구매하는 편리한 기능이다.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종이 구매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화면에 나온 전자구매표에 입력하고 발매기에서 경주권을 구입하면 된다. 스마트폰에 전자구매표만 입력하고 구매는 발매

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모바일 베팅과는 차이가 있다. 전자구매표 앱을 이용한 경주권 구매는 발매기와 비접촉 근거리통신 방식(NFC)으로 발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NFC 기능이 지원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여자축구 꿈나무들 700여명, 실력과 우정 나눈다

스포츠 7330
일주일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15~16일 여자어린이 축구교실
서울·제주 등 전국 선수들 참가

2016 여자어린이 축구교실 캠프가 강원도 홍천군 종합운동장에서 15~16일 이틀간 개최된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주최하고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가 주관하는 이번 축구교실 캠프에는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 48개 여자어린이 축구교실 소속 7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된다. 축구 경기는 성인 규격 잔디구장 4분



지난해 열린 여자어린이축구교실 캠프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 사진제공 | 대한체육회

의 1 구역에서 전·후반 각 10분으로 운영된다. 출전선수는 각 팀별 7명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 경기를 비롯해 개회식 때 진행되는 각 교실의 장기자랑 시간을 통해 선수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친선, 우정을 나누

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여자어린이 축구교실은 축구를 좋아하고 즐기는 여학생들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선정된 축구교실은 주 2회씩 10개월간 지도자 수당 및 학생 유니폼, 축구공 등을 지원받는다. 현재 전국에는 13세(초등학교) 이하 여자어린이로 구성된 48개 여자어린이 축구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축구지도자가 팀을 지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1명의 학생이 여자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 혹은 중학교로 진학했다. 여자어린이 축구교실은 한국 여자축구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형오 기자 ranbi@donga.com

경륜경정, 광명시 소외계층청소년에 학습지원금

“지역사회 발전위해 더 노력”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8일 광명시 소외계층 초·중학생에게 과외학습지원금을 전달했다(사진). 제6회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신나는 아동축제 한마당 개회식에서 진행된 전달식은 김성택 경륜경정사업본부 마케팅실장, 서일동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임주 광명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지원금 6000만원은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광명시 지역아동센터연합

회와 연계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의 과외학습 자원에 사용된다. 광명시 거주 소외계층 대학생을 과외교사로 우선 선발해 과외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과 과외교사 모두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경륜경정사업본부 김성택 마케팅실장은 “경륜장이 광명으로 이사 온지 10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



도록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했다. 김종건 기자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